

國內情報

우리나라熔燐導入問題를 協議

= 日本全農關係官과 韓國 Maker 側間 =

日本선 2.5 ~ 3 万吨輸入할것으로 觀測

우리나라産 熔燐輸入 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日本 全農의 關係官이 來韓, 우리나라 maker 側과 輸入數量 및 價格問題에 대한 具體的인 折衝을 끝내고 歸國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 7月28日 日本全農本所肥料農藥部の Namai(生井) 燐酸課長이 來韓, 78肥(78.7 ~ 79.6)의 우리韓國産 熔燐輸入問題를 組上에 놓고 京畿化學과 豊農肥料側 關係者들과 數量 및 價格問題에 대해 具體的인 協議를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仔細한 協議內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Maker 側의 한 關係者에 依하면 "日本側에서 具體的인 數量과 價格提示를 하지 않아 別다른 進展을 보자 못했다"고 하는데 앞서 우리나라側 Maker에서는 今年(78肥)에 5万吨의 供給을 提議한바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그러나 日本側에서는 關係 Maker들이 內需라든가 操業廢 혹은 新規 Maker 參與問題 등을 내세워 量的 壓縮을 強力하게 要求하고 있어 全農이 이러한 事情속에서 Buyer로서 우리나라熔燐輸入 問題를 어떻게 處理할것인지 매우 注目되고 있다.

한편 日本의 한觀測通에서는 지난해보다 若干 增加된 2万5,000吨, 많은 경우엔 3万吨程度가 될 公算이 큰것으로 보고있는데 지난해(77肥)에는 2万吨을 輸入했었다.